

양현종 '텍사스' 계약... 마이너리그서 험난한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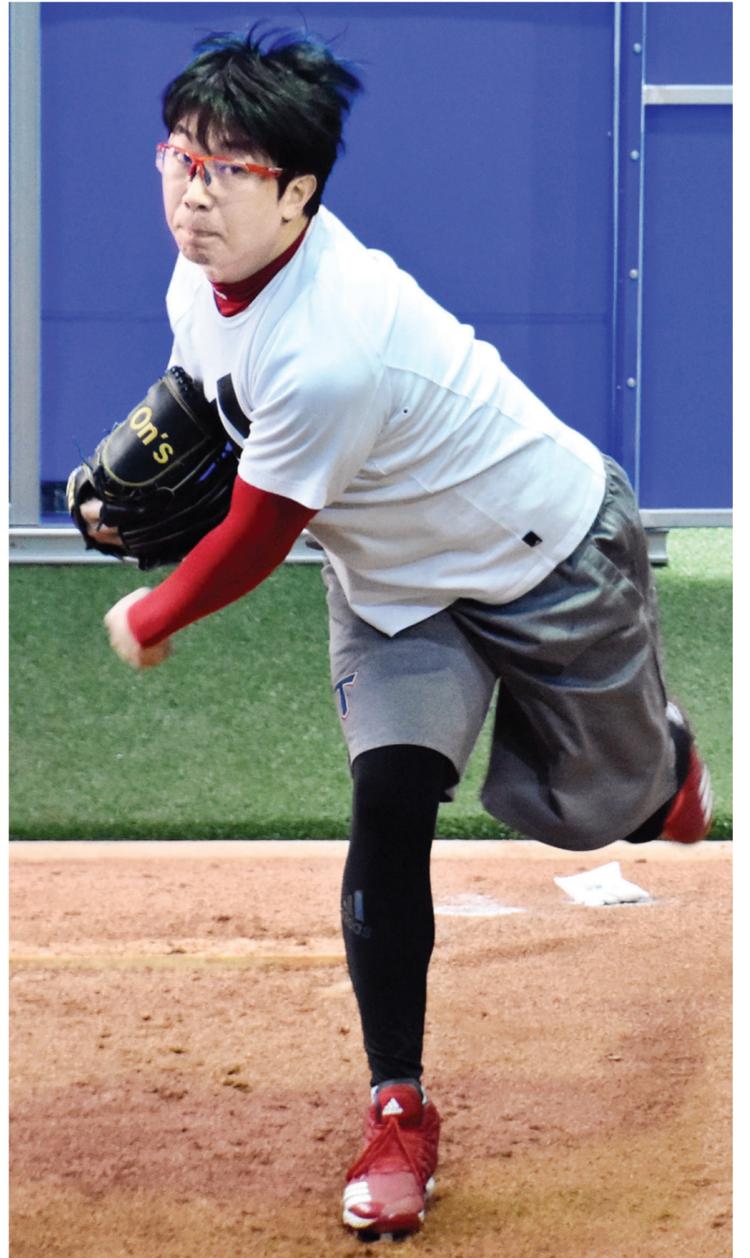
최대 185만달러...스프링캠프 초청 텍사스, 캠프서 4~5선발 결정 시범경기 성적에 메이저행 '명운' 윌리엄스 감독 "양, 준비 잘돼 있다"

양현종이 텍사스 레인저스 스프링캠프에서 '바늘구멍' 뚫기에 나선다. 미국 진출을 준비해온 양현종이 텍사스 레인저스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고, 스프링캠프 초청 선수로 빅리그에 도전한다. MLB 텍사스 레인저스는 지난 13일 "내야수 브룩 홀트, 좌완 양현종 그리고 포수 존 헉스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하고 스프링캠프에 초청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현종은 오는 18일부터 미국 애리조나주 스프라이즈 스타디움에서 시작되는 텍사스 구단의 투·포수 훈련에 참여해 빅리그에 도전하게 된다. 양현종은 이날 텍사스 구단이 발표한 40인 로스터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하지만 텍사스의 선발진이 약점으로 꼽히는 만큼 스프링캠프와 시범경기를 통해 실력을 보여준다면 빅리그 진출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양현종이 메이저리그에 입성하게 되면 최고

185만달러(약 20억 50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MLB닷컴은 "양현종이 메이저리그에서 뛰게 되면 보장 연봉 130만달러(약 14억4000만원)를 받고, 성적에 따라 보너스 55만달러(약 6억1000만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카일 김슨, 마이크 폴티네비치, 아리하라 고헤이 등으로 1~3선발을 확정할 텍사스는 스프링캠프를 통해 4~5선발을 확정할 전망이다. 6선발 체계 가능성도 언급되는 상황에서 양현종은 선발 로테이션 진입 경쟁을 하게 된다. 양현종에게는 세 번째이자 사실상 마지막 빅리그 도전이다. 양현종은 2014년 포스팅 시스템(비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처음 미국 진출을 노렸다. 하지만 150만 달러 정도의 낮은 금액이 기록되면서 KIA의 반대로 KBO리그에 잔류했다. 2016시즌이 끝난 뒤에는 자유계약선수(FA)로 해외 시장에 나섰다. 하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국내로 유턴. 2017년 팀의 우승을 이끌면서 MVP에도 등극했다. KIA와 단년 계약을 맺었던 양현종은 4년을 다 채운 뒤 세 번째 해외 진출을 선언했다. 애초 1월 20일을 해외 진출 시한으로 삼았던 양현종은 코로나19 등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자 30일로 시한을 미루며 해외 진출에 강한 의사를 보였다.

KIA와 FA 협상 테이블을 정리하고 배수진을 친 양현종은 '마이너리그 계약까지 감수하겠다'며 눈높이를 낮췄고, 스프링캠프 초청선수로 메이저리그를 향한 세 번째 도전을 이어가게 됐다. 양현종의 계약 소식을 들은 윌리엄스 감독은 "양현종이 미국에 간다고 결정하고 난 뒤에 경기장에 와서 이야기를 나눴었다. 당시에는 어느 팀인지 결정은 안 된 상태이기는 했지만 열심히 잘하는 선수니까 하는 대로 하면 될 것 같다"며 "대신 경쟁이 심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줬다. 지금 타 이미지가 좋지는 않고, 미국 팀들이 제한적인 계약지만 개인적으로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있는 상태라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타자들이 많이 다르다는 것도 이야기해줬다. 지금 미국야구 추세가 볼넷을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다. 그리고 파워게임이다. 또 공인구가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른다. 투수들은 좋아하는 것 같다(웃음)"며 "스트라이크 던지는 게 중요하다. 볼카운트 초반에 스트라이크 잡아놓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조언했다. 한편 양현종이 경쟁을 뚫고 텍사스 유니폼을 입게 되면 박찬호, 추신수에 이어 한국인으로는 세 번째로 텍사스에서 뛰는 선수가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텍사스 레인저스와 마이너 계약을 맺고 빅리그에 도전하게 된 양현종이 14일 KIA 훈련이 끝난 뒤 챔피언스필드 볼펜에서 공을 던지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손님되어 온 양현종 "KIA 팬 실망시키지 않겠다"

계약 후 챔필 등장 피칭 훈련...비자 해결 때까지 KIA 캠프 합류

챔피언스필드에 반가운 손님이 함께한다. 14일 KIA의 그라운드 훈련이 마무리될 때쯤 익숙한 얼굴이 등장했다. 양현종이 운동복 차림으로 등장해 선수들과 인사를 나누며 눈길을 끌었다. 양현종은 KIA의 실외 훈련이 모두 마무리된 뒤 외야로 향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외야 러닝을 하면서 몸을 풀 양현종은 볼펜 포수 이동건의 도움을 받아 캐치볼에 이어 볼펜 피칭까지 소화했다. 양현종은 메이저리그 공인구로 30개의 공을 던지면서 몸 상태를 점검하고, 감 잡기에 나섰다. 해외진출을 타진했던 양현종은 지난 13일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마이너리그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스프링캠프 초청선수로 텍사스의 캠프지

인 애리조나로 건너가 선발 경쟁을 하게 된다. 아직 비자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탓에 양현종은 며칠 광주에 머물며 챔피언스필드에서 훈련할 예정이다.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양현종에게 다행히 캠프지인 애리조나는 익숙하다. KIA 스프링캠프지로 훈련을 했던 경험이 있고, 박흥식 전 KIA 감독대행도 지원군을 자처하고 있다. 박 감독대행은 얼마 전 미국에 거주하는 딸을 만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고, 애리조나 캠프지를 돌면서 야구 공부할 계획이다. 양현종은 텍사스와의 계약이 확정된 뒤 박 감독과 통화도 했다. 확실한 자리가 보장되지 않은 만큼 어려운 도

전이 기다리고 있지만 텍사스는 양현종에게 잘 맞는 팀으로 꼽힌다. 또 양현종을 잘 아는 팀이기도 하다. 양현종의 에이전트인 최인국 스포스타즈 대표는 "텍사스는 양현종 선수를 포스팅때부터 관심을 갖고 지켜봐 온 팀이다. 그만큼 양현종 선수를 잘 파악하고 있기에 실력 발휘할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구단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양현종은 에이전트를 통해 "돌아보니 14년간 KIA 타이거즈와 함께 했다. KIA 팬들의 열렬한 응원과 과분한 사랑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다. 대단히 감사했다"며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이 헛되지 않도록 잘 준비해서 KIA팬 뿐만 아니라 야구팬들에게 꼭 좋은 모습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휴일 잇은 KIA 캠프 '연습도 실전처럼'

투수·야수조, 수비·전술 훈련 브룩스·임기영·멩덴, 볼펜 피칭 합평 2군 캠프와 '따로 또 같이'

KIA 타이거즈의 캠프가 계획대로 조금씩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1일 스프링캠프를 시작한 KIA는 지난 7일과 12일 두 차례 휴식날을 보냈다. 그리고 13일 팀 수비훈련이 진행되면서 따로 훈련했던 투수들과 야수들이 처음 호흡을 맞췄다. 이들은 14일에도 함께 실전처럼 수비 상황에 맞춰 움직였다. 윌리엄스 감독은 "2주 차 들어가면서 팀 수비, 전술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은 1-3루 수비, 더블 스틸 훈련이 있다. 매일 조금씩 이런 부분이 달라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볼펜도 바빠지고 있다. 지난 8일 볼펜피칭에 돌입해 작구를 점검했던 투수들은 투구수를 늘려가면서, 변화구 시범도 하고 있다. 13일 브룩스가 먼저 두 번째 볼펜 피칭을 했고, 14일에는 멩덴이 볼펜 마운드에 다시 섰다. 첫 피칭에서 25개의 작구를 던졌던 멩덴은 두 번째 볼펜 피칭에서는 38구를 시범했다. 작구는 물론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터, 투심 등을 구사했다. 25개의 공을 스트라이크 존에 집어넣은 멩덴은 좋은 공 움직임을 보여주며 박수를 받았다. 앞서 옆구리 담쟁이로 볼펜 피칭을 하지 못했던 선발 후보 임기영도 이날 처음 피칭에 나섰다. 30개의 공을 던졌고, 20개가 존을 통과하는 등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14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진행된 스프링캠프 팀 수비 훈련에서 KIA 김현수가 마운드에서 공을 던지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합평 캠프와의 '따로 또 같이' 전략도 잘 진행되고 있다. 챔피언스필드에 본 캠프를 차린 KIA는 합평 챔피언스 필드에서 2군 선수단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와 합평은 똑같은 일정과 스케줄 대로 2021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또 데이터를 통해 선수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 기회를 열어놓았고, 윌리엄스 감독이 쉬는 날 없이 큰 틀에서 선수들을 점검하고 있다.

윌리엄스 감독은 "쉬는 날마다 볼펜피칭이 잡혀 있다. 합평조가 광주에서 공을 던진다. 서재용 코치가 훈련을 진행해주기 때문에 소통도 잘되고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데이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합평에서 얼마나 많은 공을 던지고, 스트라이크를 몇 개 던졌는지 등을 입력하게 했다. 누구나 데이터를 공평하게 볼 수 있게 했다. 수치를 통해 선수들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재용 코치가 선수를 추천하기도 하고, 내가 보고 싶은 선수를 요청해 살펴보고 있다"며 "앤서니 코치는 코디네이터로 훈련 방식을 촬영해서 합평도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가게 하고 있다. 전체적인 시스템을 확립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수월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윌리엄스 감독의 특별 지도도 시작했다. 13일 박찬호를 불렀던 윌리엄스 감독은 14일

황대인을 상대로 엑스트라 훈련을 진행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타격 코치들과 매일 엑스트라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1대 1, 3대 1로 훈련을 할 예정이다"며 "선수들의 필요한 부분에 맞춰서 지도하고 있다. 선수들에게 '할 수 있다', '변화 할 수 있다'는 정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 시즌 들어가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다듬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